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Monday 6 May 2002 (morning)

Lundi 6 mai 2002 (matin)

Lunes 6 de mayo de 2002 (mañana)

1 h 30 m

---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Text handling).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Lecture interactive).
- Répondre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requeridos para la Prueba 1 (Manejo y comprensión de textos).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제 4 회 한국배우기 여름 학교

21 세기를 맞아 세계각국의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동포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문화에 젖어 부모세대를 이해 못하는 동포 자녀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예의범절, 그리고 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한 덕목인 강력한 리더쉽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출발일자: 제 1 차: 2001 년 6 월 28 일

제 2 차: 2001 년 7 월 12 일

참가대상: 해외동포청소년, 입양자녀, 외국계 청소년 (만 12 세 이상)

총 참가비: 850 불+ 항공료 (학생특별요금)

구분	일정표				
	일차	오전	오후	야간	숙소
제1일	1차 인천공항도착 6시30분 기타도착(09시 평화의 문 집결)	2차 도착 인천공항 2시30분 도착 후 출발(인원점검)	오리엔테이션		삼척대학 기숙사
제2일	환영회(삼척시장/시장 인사말) 분임조 회의/애국가 연습 삼척자연경관 시청	삼척관광(환선굴 관광)	친목활동(자기소개...) 환영의 밤		
제3일	군부대 입소	제식훈련, 기초 군사훈련	자유시간(영화관람 및 삼척 해수욕장 관광...)		
제4일	삼척대학교 우리말 교육강좌(1)	비취발리볼, 발야구 경기	자유시간		
제5일	운동회(전통놀이 운동회) 자치기, 투호, 씨름, 널뛰기...	팀웍(장기자랑 준비)	가요배우기(애국가, 울등, 국내최신곡 가요배우기...)		
제6일	설악산 등반	설악산 등반	영화관람(춘향전, 공동경비구역, 서편제...)		
제7일	삼척대학교 우리말 교육강좌(2)	통일 전망대 견학	자유시간		
제8일	역사강좌	사물놀이 또는 탈춤실습	장기자랑		
제9일	보령체험훈련장 이동	입소식, 산악유격 종합트레이닝	야간 달력 훈련, 야간 산악 행군	훈련장	
제10일	갯벌체험	해상 트레이닝	용인이동		강남대 기숙사
제11일	예절교육(총, 호, 예) 민속촌 교육 프로그램	과천 현대미술관	우리가요 경연대회		
제12일	에버랜드	에버랜드	자유시간		
제13일	서울관광 (상암지구 월드컵 구장)	서울관광(남산, 고궁...)	송별의 밤		
제14일	캠프수료증 증정 및 퇴소식 인천국제공항이동				

## 본문 B

### 청소년 흡연 10 년새 세계 최고

담배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숨줄을 갉아 먹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흡연으로 한 해 400 만 명이 죽는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그 중의 상당수가 바로 우리 한국인이다. 우리 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은 68.2%로 단연 세계 1 위이며 청소년 흡연도 지난 10 여년 간 급속히 증가하여 급기야는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5 월 2 일 보건 복지부가 발간한 월간 ‘건강 길라잡이’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 나라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7.6%로 아시아-태평양권의 싱가포르 (3%)나 일본 (8%) 같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 (23%)이나 대만 (24%)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여고생의 흡연율 (10.7%)도 최고를 기록했고, 중학생들의 흡연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동안 무려 6,700 만 갑의 담배를 약 50 만 명의 중고생들이 빠끔거렸다는 결론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흡연퇴치운동을 벌여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이것마저 오히려 후진국으로 퇴화하고 있다. 섹스 스캔들로 얼룩은 졌을 망정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을 이룩하여 역대 가장 유능한 대통령 중의 하나로 평가 받는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그의 최대 치적이 금연운동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킨 것이라는 비아냥 거림이 따라다닌다. 그의 재임기간 중 미국 남성의 흡연율이 34%에서 28.1%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흡연율의 감소가 경제지표로 당장 나타나는 것 외에도 건강증진으로 인해 먼 미래에 얻을 경제적 이득을 감안하면 클린턴의 치적은 더욱 엄청나다.

본문 C

강원 산골 초등생들 미국을 가다  
“와 TV서 보던 백악관이다”

a

“여기가 정말 백악관인가요? 미국대통령 집치고는 생각보다 작네요.” 어린이날 (22 \_\_\_\_\_) 학습으로 난생 처음 미국땅을 밟은 강원도 산골 초등학생들은 3일 (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을 둘러보며 마구 물어댔다. 지난 달 30일 서울을 출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2일 워싱턴에 온 강원 원주시 부론면 단강 1리 단강초등학교 (교장 박종운) 학생 21명은 이날 멋진 하루를 즐겼다. 학생들을 초청한 워싱턴한인 감리교회 (담임목사 조영진) 교인들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어린이들은 이날 오전 첫 (23 \_\_\_\_\_)으로 북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북스프링필드 초등학교를 찾았다.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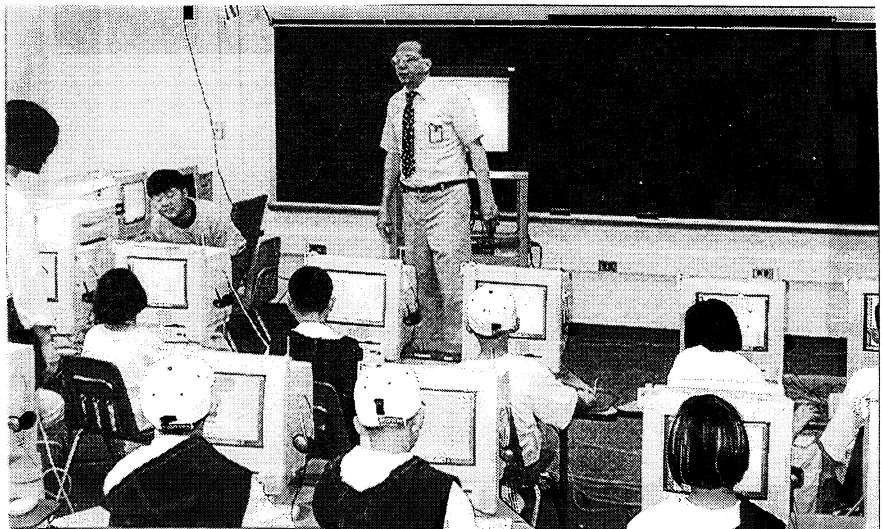
학생들은 수잔 오우너 교장의 안내로 도서관과 구내식당을 둘러 본 뒤 컴퓨터실과 미술실에서 미국인 교사의 지도로 1시간씩 ‘미국 수업’을 받았다. 화장실과 도서실 입구에 7개 국어로 쓰여 있는 안내문 중 한글이 끼어 있는데 학생들이 놀라자 오우너 교장은 ‘한국계 학생이 20여명도 넘는다’며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이어 학생들은 워싱턴으로 들어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부터 찾았다. 의사당에서 학생들은 지한과 토니 홀 하원의원 (민주당, 오하이오주)과 (24 \_\_\_\_\_)하는 기회도 가졌다. 여러 차례 남북한을 방문한 홀 의원은 ‘나도 여러분과 같은 시골 출신이어서 처음 의원신분으로 등원하던 날 의사당 안에서 길을 잃은 적도 있다’며 “여러분도 큰 꿈을 갖고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25 \_\_\_\_\_)했다.

c

전교생이 24명에 불과한 단강초등학생들의 (X \_\_\_\_\_)에 가까운 이번 여행은 지난해 9월 학교 운영위원장인 단강교회 한희철 목사의 제안으로 비롯됐다. 단강 1리는 80여호에 불과한 ‘진짜 시골마을’이고 남한강변에 위치한 단강 초등학교는 작지만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한때는 학생수가 200여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26 \_\_\_\_\_) 위기에 처해 있다. “(27 \_\_\_\_\_)으로 도회지로 전학가는 학생이 늘면서 위축돼 가는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여행을 생각했어요.”고 한목사는 말한다.

d

한목사는 서울감신대 선배인 워싱턴의 조영진 목사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박종운 교장은 학생들과 학교 주변 휴경지에 보리농사 등을 지어 경비를 마련했다. 학부형과 교인들도 돈을 보탤고 소식을 들은 아시아나 항공이 항공료를 절반으로 할인해 줬다. 또한 워싱턴 한인감리교회측도 미국에서의 체류비를 부담했다. 지역사회와 기업, 종교계 및 재미동포가 ‘4 위일체’가 돼 이뤄낸 셈이다.



# “南北정상직통전화 설치”

## 金·金 1 차회담 교류·협력방안 폭넓게 논의



### 남북 정상회담

a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낮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에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상봉을 겸한 1차 남북 정상 회담을 하고 남북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b 두 시범은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자”면서 정상간 화란인을 설치키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2차 정상회담을 14일 하기로 했으며 금대통령의 평양일정 2박3일 동안 남북한 현안에 대해 격시없이 논의할 의사를 찾기도 했다. 또한 남북간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일정을 차질없이 진

행키로 했다.

c 금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오전 11시45분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한 직후 남측에선 박재규(朴在圭)통일부·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한광옥(韓光玉)청와대비서실장 등 공식수행원 전원이, 북측에선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27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위원장은 “세계가 금대통령이 왜 방문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2박3일 동안 대담해줘야 하고, 대화를 주는 사업에 금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대통령은 “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평양시민들이 환영해주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김위원장은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으며 우리가 어

면 마음으로 (금대통령의)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특별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대통령은 평양 도착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북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다”면서 “저는 김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성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 금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경제·문화·관광·환경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이산가족 재결합 실현▶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와 함께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 금대통령은 오후 민수대의사당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예방하고 민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이날 저녁 김 상임위원장이 배부 환영연에 참석했다.

평양-남북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f <남북 정상회담 지면안내>

- 3면 金·金 정상회담
- 4면 파격적 공항 영접
- 5면 평양 도착 이모저모
- 6면 儀典 관례 깬 同乘
- 7면 공경나온 北 고위인사
- 8면 출발·도착성명
- 9면 화보
- 전문기 좌담
- 해외 언론·교포 반응
- 실형민의 뺨 음반 제작
- 시민들이 본 김정일
- 전국 환호와 충격
- 北 SOC 南수준 되려면
- 남북 스포츠교류 활성화